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욥의 대답】 상처 입은 욥

- 1 그때 욥이 대답했습니다.
- 2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가리 찢어 놓겠는가?
- 3 자네들이 열 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의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 4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일세.
- 5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아지려 하고 나를 꾸짖어 고발하려거든
- 6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러뜨리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이제 알게나.
- 7 보라.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이 없다네.
- 8 그분이 내 길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내 길에 어둠을 깔아 놓으셨다네.
- 9 내게서 명예를 벗기시고 내 머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버리셨다네.
- 10 그분이 사방으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구나. 내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셨다네.
- 11 그분이 나를 향해 진노의 불을 켜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같이 여기시는구나.
- 12 그 군대가 한꺼번에 나와 나를 향해 진군해 내 장막 주위에 진을 치는구나.

·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는 욥

- 13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두셨으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외면한 다네.
- 14 내 친척들이 다 떠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네.
- 15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니 나는 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이라네.
- 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입으로 애걸했다네.
- 17 내 아내도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혐오스러워했다네.
- 18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경멸하며 내가 일어났더니 나를 비웃었다네.
- 19 내 속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네.
- 20 나는 이제 가축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아 있구나.

3 묵상하기

욥은 친구들과 대화할수록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만하라고 차단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제 친구들은 물론 종들에게까지 버림받아 철저히 혼자가 된 욥에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상처받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욥의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아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그런 수고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이 아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모든 걸 가졌던 욥이 한순간에 다 잃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소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넘치게 받지만, 반대로 가져가시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때로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여전히 선하신 그분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허무하게만 느껴질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 ②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마음, 혹은 내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가느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하나님마저 멀게만 느껴질 때에도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입으로 애걸했다네.

17 내 아내도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혐오스러워했다네.

18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경멸하며 내가 일어났더니 나를 비웃었다네.

19 내 속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네.

20 나는 이제 가족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아 있구나.

• 궁굼 사전

*애걸: 어떤 요구나 소원을 들어 달라고 불쌍하게 간절히 비는 것

*혐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경멸: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

• 말씀 씨앗

욥은 친구들이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했지만,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 비판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욥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내마저 욥을 싫어하고, 주위 사람들은 욥을 미워하며 비웃기만 했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싫어하고 멀리했지요. 지금 욥은 철저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있어요.

3 말씀 새싹 - 말씀을 읽고 알맞은 것을 찾아 선을 그어 보세요.

내 종 (16절)	나를 싫어해요
내 아내 (17절)	나를 경멸해요
내 형제들 (17절)	나를 혐오스러워해요
어린이들 (18절)	내 입김을 싫어해요
내 친구들 (19절)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5 말씀 열매 -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나를 위로해 준 _____ 에게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과 무시를 당한 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있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랑으로 대해준 ○○○(을)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